

전주 첨단기계벤처단지 현장 방문

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와 지방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도화, 시스템화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뢰와 조절, 대화를 통하여 새만금 같은 사회적 갈등을 풀어갑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김완주 시장으로부터 테크노밸리 설명을 들으면서 결론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한수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진실하게 배우러왔습니다.

대통령 당선이후 기술혁신과 지방화를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 불을 발목 잡혀 있는데 IMF위기를 거쳤고 8년간 마의 1만 불에 잡혀있습니다. 그 동안 집적 이익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만 불에서 2만 불 시대로 가려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여야 합니다. 혁신 주도형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불균형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히려 한쪽은 발전하고 한쪽은 낙후되었습니다. 이 사이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 비교로 수도권이 과밀하면 산업기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과 지방화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성공사례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외사례가 많지만 한국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서 성공이 엿보이는 것이 있지만 전주만큼 성공한 지역은 없습니다. 정부가 기술혁신과 지방화 시대를 내세우기도 전에 정부의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금을 내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지방 스스로 발전 성공한 다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기업이 가장 앞서가고 그 다음 지자체가 앞서가고 중앙정부는 맨 뒤에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마지막으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와서 느꼈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기업과 대학이 손잡고 앞서가고 있는데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끌고 가고 밀고가고 있습니다. 전주가 한 모델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이 만 불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잘 되는 모델을 찾아 두 배, 다섯 배, 아니 열배까지 복사 확대해서 국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낙후지역 특히 그 지방의 우선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합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은 확고한 시스템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도 더 투자하겠지만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평가도 해보고 또 지방의 우수혁신사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전주가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면 잘못되기가 아주 높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지만 평가 기준을 우수혁신사례와 낙후되고 복돋아야 할 지역, 지방발전을 우선 요소로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점수 엄청나게 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즉흥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외된 곳에 대해 빛

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임기가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굳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가 또 국회에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손잡고 해 나갑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척 하면 제 아내가 타박을 합니다. 제가 타박 안 받게끔 마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여기 와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피해 없거나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몇 단계 어떻게 실시하던 간에 전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전북 의원들이 오셔서 전북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민의 마음에 들고 최대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전북이 함께 참여해서 전북이익이 되도록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의장이 청와대에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3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획된 사업비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을 합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서로 믿고 최대한의 방법을 찾읍시다. 못 믿으니까 합의가 안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능력 범위를 벗어납니다. 장관이 3보 1배할 때 위로인사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게 되면 지지를 하고 위로하고 설득하기 위해 인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심스럽게 보는지 안타깝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여기 와서 농지가 많으면 폐돈 버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관은 개인 견해였는데 그 시기에 정부정책을 얘기

하다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집어서 얘기하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새만금기획단을 만들어 정세균 의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가 시간 조절하는 동안 환경단체 일도 벌여졌지만 그 뒤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그 업무가 갔습니다. 총리도 이 지역 출신 아닙니까. 총리와 여러분은 영원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저의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서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역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이 갈라지고 소속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부안문제가 정치공격, 정치공방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간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정부가 부안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고 버티고 있는데 무질서로 막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것입니다. 대화 결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면 정부가 무슨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사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도지사, 시장 간에도 협력할 일이 많습니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정치적 이유로 나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은혜를 입지 않은 때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로 당선됐는데 배신하겠습니다. 서로 믿음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새만금을 볼 때 큰 희망이고 볼수록 물건(좋은 작품이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와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반드시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